

대구문화재단 대표 "따라 해선 빛 못 본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김순규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일 "문화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따라 해서는 빛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날 공식 취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이 국제영화를 하니까 다른 도시들도 너도나도 국제영화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에서 역점 추진 중인 오페라 산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잘나가는 작품을 가져와서 여기서 공연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대구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기 어렵다"라면서 "자체적으로 오페라를 제작하던지,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역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왈츠의 도시'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구가 섬유도시인 만큼 왈츠와 같은 음악과 춤, 패션이 합쳐지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이사는 "문화산업도 근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 문화산업이 돈을 버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이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문화관광부 차관과 예술의 전당 사장,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5-20 16:08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c) 2005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